

석유 최고가격제 첫날 광주... “여전히 비싸 체감 안 돼요”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 안정 방안으로 '석유 최고가격제' 카드를 꺼내든 13일,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주유소에는 차량 행렬이 이어졌다.

주유소 진입로에는 차를 기다리는 승용차들이 꼬리를 물었고, 출퇴근이나 점심 시간이 아님에도 주유기마다 차량이 금방 들어섰다. 정부의 최고가격제 시행 소식에 시민들이 상대적으로 쌀 주유소로 몰린 것이다.

이곳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0당 1795원으로 같았다. 전날 가격(휘발유 1845원·경유 1850원)보다 50원가량 낮아졌다.

인근 주유소들 가운데에는 전날보다 가격을 100원 더 내린 곳도 있었지만 비슷하거나 동일한 가격을 유지한 곳도 있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0당 1854원으로 전날(1870원)보다 16원 내렸고, 경유는 1882원에서 1865원으로 17원 하락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부터 정유사의 공급 최고가격을 보통휘발유 0당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실내등유 1320원으로 지정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국 1만3000여 개 주유소의 판매가격을 일률적으로 통제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도매가격인 정유사 공급 가격에 상한을 두는 방식을 선택했다.

다만 주유를 하러 온 시민들은 '여전히 기름값이 부담스럽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안정방안으로 '석유 최고가격제' 카드를 꺼내든 13일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주유소에 차량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뉴스사

광주지역 휘발유·경유 0당 평균 1854원·1882원
전날 보다 16원·17원 인하... 여전히 고유가 부담
일부 주유소 50~100원 가량 낮춰, 그대로인 곳도

자영업자를 하는 김모(44) 씨는 “요즘 휘발유값이 너무 올라 주유량을 줄였다. 확실히 낮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부터 정부에서 최고가격제를 시행한다고 해서 왔다. 업을 하는 사람으로써는 체감이 되지 않는다. 여전히 터무니없이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점차 더 내려가길 바란다”고 했다.

주유소 관계자도 정부의 결단을 환영하며 정책 지속을 주문했다.

주유소를 운영하는 이모 씨는 “우리나라는 정유사 4곳이 독점하는 구조인데, 일본은 수십 개의 정유사가 경쟁한다”며 “이 때문에 일본은 이번 유가 급등 상황에서도 우리처럼 몇백원씩 치솟는 일이 없었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보이지 않던 담합 등 잘못된 행태에 대한 정부의 재찍질이 라고 본다. 정부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전남도-소방본부, 축사 화재 예방 협업 나선다

최근 5년 연평균 40건 발생...전기 요인 49%로 가장 많아
노후 축사 개선·맞춤형 소방시설 설치·농가 안전교육 강화

전라남도는 지속해서 발생하는 축사 화재를 줄이기 위해 전남도소방본부와 협업 체계를 구축,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전남도소방본부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남에서는 연평균 약 40건의 축사 화재가 발생했으며 건당 평균 재산 피해액은 약 1억 원에 달한다.

주요 화재 원인은 전기적 요인이 4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축산농가의 부주의(25%), 기계적 요인(6%) 순으로 분석됐다. 시설 유형별로는 소 축사(48%), 돼지 축사(28%), 닭 축사(24%)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남도 축산부서와 소방본부는 '축사 화재는 사전 예방이 최선'이라는 방침아래 협업을 통해 화재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함께 축산농가의 촘촘한 화재 안전망 구축을 위해 배전반 먼지 제거 등 화재 예방 요령을 안내하고 화재 안전관리 요령 영상을 제작·배포하는 등 현장 중심 예방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그동안 전남도는 축사 화재 예방을 위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축사 4천65개소를 대상으로 안전 조사와 컨설팅을 하고 소화기 미비치, 화재감지기 미작동 등 소방설비가 미흡한 85개소에 대해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화재에 취약한 축산농가 1천500호를 대상으로 올해 1월 겨울철 화재 예방 특별교육을 해 최근 축사 화재 사례와 전기설비 자가 점검 요령 등을 안내했다.

유덕구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축산부서와 소방본부 간 협업을 통해 축사 화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실질적 예방 효과를 거두겠다”며 “화재는 예방 가능한 재난인 만큼 축산농가에서도 철저한 대비와 안전관리 실천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최민철 전남도소방본부장은 “축사 화재는 구조적 취약 요인을 사전에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인허가 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주기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현근 기자

내년 전남대·조선대 의대생 300명 모집... “인프라 확충 지원을”

내년 두 대학 의대 정원 총 250명에서 300명으로 늘어나

2028~2031학년도 매년 전남대 194명·조선대 168명 양성

‘기대 이하’ 증원에 전남권 의대 신설 영향... “교육 질 중요”

광주 소재 전남대·조선대 의과대학 정원이 내년부터 300명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교육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부는 13일 서울을 제외한 지역 소재 32개 대학의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안을 발표했다.

기존 정원이 125명인 전남대 의대는 내년부터 31명이 늘어난 모집 정원 156명이 배정됐다. 2028학년도부터 2031년까지 4개 학년도에는 38명이 증원, 매년 194명을 모집한다.

조선대 의대는 2027학년도에는 19명이 늘어난 144명이 입학한다. 2028~2031학년도에는 모집 정원이 24명 추가 배정, 매년 의대생 168명을 양성한다.

2027학년도 기준 지역 별 의대생 증원 규모는 부산·울산·경남이 97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대구·경북과 대전·충남이 각 72명, 강원 63명, 광주 50명, 충북 46명, 전북 38명, 제주 28명, 경기·인천 24명 순이다.

다른 지역과 비교해 광주권 의대 정원 증원 폭은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이다.

“공부 안 해?” 훈계하다 흥기 든 40대 가장 체포

고교생 아들, 말리던 아내 흥기에 다쳐... 생명 지장 없어

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흥기에 어깨 등을 다친 아들과 아내는 모두 생명에 지장이 없다.

조사 결과 A씨는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느냐’며 아들을 꾸짖다, 아들이 반항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를

실제 전남대·조선대가 각기 요구한 증원 규모와 비교해도 밀둔 것으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 지역에 국립 의과대학이 신설될 예정인 만큼, 광주권 의대 증원 규모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달 10일 보건복지부 보건 의료 정책심의위원회 7차 회의에서는 2030년 개교를 목표로 하는 전남 목포대·순천대 통합 국립의대 정원을 100명으로 확정했다.

지역 의료계에서는 증원에 발 맞춰 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전민규 기자

이기지 못한 A씨가 집안에 있던 흥기를 들었고, 이를 만류하던 아내와 아들이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 당시 A씨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고, 가족 간 언쟁이 크게 번지며 일어난 일로 보인다고 전했다.

/오덕근 기자

광주 시내버스 요금 10년만에 250원 인상... 6월 적용 계획

성인 기준 현금 1700원... 청소년 기준 요금 적용

광주시가 시내버스 요금을 10년만에 교통카드 250원·현금 300원 인상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6월부터 시행 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13일 버스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시내버스 요금을 성인 교통카드 기준 1250원에서 1500원, 현금 1400원에서 1700원으로 인상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청소년(교통카드 800원·현금 1000원)과 어린이(교통카드 400원·현금 500원)는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광주는 대중교통정책(G-패스)에 따라 청소년은 반값, 어린이는 전액지원을 하고 있어 각각 교통카드 기준 400원, 어린이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 지난해부터 현금없는 시내버스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성인은 교통카드도 버스요금을 내면된다.

광주시의 시내버스 요금 인상은 지난 2016년 이후 10년 만으로 광주시의회 보

고·의견청취, 5월께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6월부터 적용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유가 급등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운송 원가는 매년 오르고 있지만 시내버스 요금은 10년째 제자리걸음 이어서 적자 구조가 한계에 다다랐다”며 “시내버스 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내버스 서비스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 “지하철도 요금이 오르지 않아 막대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시내버스 요금과 함께 지하철도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원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주)통일화물은 정성과 책임으로 늘 변함없이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책임있는 물류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주)통일화물
나보다 고객을 먼저 배려하는 아주 특별한 만남
이제 (주)통일화물을 만나보십시오.

(주)통일화물이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 취급차량 : 1t~12t
- 광고전단지 운송 · 배포
-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수송전문
- 일반이사 및 포장이사전문
- 정보지 · 신문 광고대행
- 기업물류 운송 전문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73-1번지 3층 ☎(062) 956-8500~2 Fax(062) 956-2001